

주영한국문화원, 세계 여성의 날 맞이 'K-역사 스페셜' 강연 개최

조선 시대 여성의 정치적 역할과 사회적 변화를 조명하는 특별 강연

주영한국문화원(원장 선승혜)은 2025년 3월 5일(수)과 3월 8일(토), 세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 3월 8일)을 기념하여 'K-역사 스페셜(K-History Unlock)'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영국에서 조선시대를 연구하는 차세대 한국학 학자들에게 발표 기회를 제공한다. 조선 시대 여성들이 정치와 사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활약했는지를 재해석하고, 영국의 청중들이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 한류와 연결하여 저마다의 해석을 더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은 “영국은 다양한 여성상을 재해석하는 경향이 강한 가운데, 영국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다양한 차세대 학자들이 조선 시대 여성의 역할을 새롭게 분석하여, 한국문화의 새로운 의미를 서술해 내는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밝혔다.

'K-역사 스페셜(K-History Unlock)' 은 영국 현지에서 한국 역사를 배경으로 한 K-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주영한국문화원은 작년 영화 사도의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 강연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2025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역사적 역할을 조명하는 특집 강연을 마련했다.

첫 번째 강연은 루시 워(Lucy Waugh, 런던대학 SOAS 한국학 박사과정)가 조선 시대 왕실 여성들과 정치의 관계를 살펴본다. 조선에서 15세기부터 19세

기까지 총 일곱 차례의 대비 섭정을 분석하여, 조선의 통치 방식과 여성상을 발표한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웅 산 찬(런던대학 SOAS 한국학 박사과정)이 조선 시대 성리학에 기반한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규정되고 변화했는지를 분석한다. 강연에서는 국가 포상 제도(정표, 旌表)와 윤리 교과서 (삼강행실도, 三綱行實圖)를 통해 조선 여성들에게 사회적·정치적 유교규범이 삶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주영한국문화원은 이번 강연을 통해 조선 시대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역할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영국 내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번 ‘K-역사 스페셜(K-History Unlock)’ 강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을 통해 참가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영한국문화원 홈페이지(www.kccuk.org.uk)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주영한국문화원	책임자	원장	선승혜 (s.sun@kccuk.org.uk)
		담당자	실무관	송인홍 (irhong.song@kccuk.org.uk)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